사·부·대·중

상상해 보라



노귀남
경희대 겸임교수

아프간 인구 2500만명에 70%이상이 영양실조, 난민 500만명이상, 5세미만 아동 사망률 1000명 당 250명, 평균수명 44세… 이 비참한 지표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을까. 텔레반 정부가 조건없이 항복을 했다지만, 테러와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부시 대통령도 모른다.

테러와의 전쟁이 9·11 뉴욕 무역센터의 참사로 시작되고, 미국은 인륜과 정의의 이름으로 '성전'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 미국 시민과 아프간 약자의 목숨이 같다는 인권의 보편 진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모를 일은 이것만 아니다. 회교국들의 반미주의가 왜 일어났는지, 테러집단의 실체와 그들이 목숨을 던져 원한을 갚으려 한 까닭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녕 살펴보았는지. 현기영 선생은 문제를 즉각적인 선악의 대결구도로 놓지 말고, 사건의 인과를 읽어서 보이지 않는 진실까지 꿰뚫어 보는 상상력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했다.

'눈먼 삼손'과 같은 맹목적인 분노는 우리 모두를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겨울나무를 보며 이런 상상을 한다. 세월에 잃었는지, 강남 바람에 잃었는지. 이제 잃을 것도 없다는 듯, 빈 나뭇가지의 사이사이옷들이 잿빛 하늘을 웃는다. 굴러 떨어진 낙엽들은 썩을 곳을 모른다. 하느님한테 물을지, 부처님한테 물을지 어리둥절하다. 청소부 쓰레받기에 쓸려간다.

우리가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는 하느님, 알라신, 부처님을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의 반영으로 상상해 보면 어떨까? 최소한, 문제의 핵심을 내 안으로 비춰볼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미국이 25번이나 남의 나라 정권을 갈아치웠던 문제를 스스로 보고, 나머지 나라들은 '십자군'에 맹목적으로 좇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부조리와 절망을 인격의 거울에 되비추어 세상 밖으로 꼬여내어 빛이 되는 꿈을 꾼다

목탁 소리

종단협의 '작은 틈'

김 원 우 (취재1부 차장)

조계종과 종단협의 관계에 '작은 틈'이 벌어졌다.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법회와 템플스테이사업의 주최, 주관, 후원에 관한 업무분담 등을 두고 일어난 불협화음이 그 발단이었다.

23일 열린 종단협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조계종 측은 "그간 종단협에서 템플스테이사업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종단협보다는 조계종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회장 정대스님의 뜻이다"며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이 종단협 회장스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주최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종단협 실무자와 다른 종단의 스님들은 "종단협이 기획 기안하여 회장의 결재까지 마친 상태에서 업무이관 절차 없이 조계종 총무원으로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두 행사를 범불교적 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종단협이 주최하고 조계종이 주관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여타종단들의 입장과 사기문제가 있는 만큼 정대스님에게 다시 보고하여 논의하자고 의견이 집약돼 봉합된 듯 했지만, 회의 후 종단협 관계자와 스님들이 쏟아낸 말은 종단화합이 우려될 정도였다.

"이렇게 조계종 마음대로 종단협이 운영될 거면 굳이 다른 종단들이 참여할 이유가 있느냐"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조계종이 도맡아 하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종단협에서 주최하느냐"는 한 목소리였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종단간의 불화는 안된다. 조계종 등 20여 종단이 모여 종단협의회를 만든것도 불교일을 좀 더 잘해보려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닌가. 화합이 전제가 돼야 하고 일 추진에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힘의 논리'가 아닌 합리적인 운영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계 5개 언론사 공동포럼 '둘아님(不二)의 사회 철학적 의미'

"중도·연기 가르침 인류 영구평화의 길"

'불이(不二)사상의 사회철학적 의미'를 주제로 한 대규모 토론 광장이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불교계 최초로 현대불교신문사와 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텔레비전 불교방송 등 5개 언론사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 협찬 강연에서 김재영 교수(동방불교대)는 초기경전에서 불이사상이 어떻게 정립되었는가를 고찰하고, 중도와 연기의 가르침이야말로 인류 영구평화의 길임을 강조했다. 이어 '둘 아닌 지구촌 사회에 있어서 개체와 전체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발제 논문을 발표한 심재룡 교수(서울대)는 유마경에서 가르치는 불이정신과 화엄의 법계연기 사상을 근거로 개인과 사회가 둘 아닌 관계를 조명하고 '개인'의 마음 변화를 통한 사회 발전을 강조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공종원 불교언론인회 회장, 정병조교수(동국대), 허우성교수(경희대)가 토론자로 나섰다. 두 번째 토론의 주제 발제에 나선 박세일 교수(서울대)는 '둘 아닌 세계에서의 직업과 노동의 윤리'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교수는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삶속에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보살행이자 불국토 건설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에는 권기종 교수(동국대), 박준영 전무(SBS), 배금자 변호사가 참여 했으며, 두 토론에 대한 진행은 성태용 교수(건국대)가 맡았다.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둘아님(不二)의 사회철학적 의미' 토론회에서 500여 참석자들은 '수행을 통한 불국토 건설'에 공감을 표했다.

주제Ⅰ: 둘아닌 지구촌 사회 개체와 전체의 관계

심재룡 교수 〈서울대 철학과〉

"개인 변혁 우선 '불이' 포교방편"



'불이(不二)'란 둘이 아니고 나누어지지 않았으며, 다르지 않다는 말로 일단 정리할 수 있다. '하나'라는 말은 또 하나를 보태서 둘이 되는 하나가 아니라 전체, 즉 그것밖에 없고 상대되는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라는 것이다.

'불이'의 정확한 의미는 <유마경>과 <화엄경>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마경>은 세간과 출세간, 즉 성과 속,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이 둘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이사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적 자아와 종교적 자아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의 완성은 사회적 자아(세속적 자아)와 종교적 자아(초월적 자아)의 양극을 지양하는 중도의 길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회적 자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선 <화엄경> 사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엄사상의 근본은 연기사상이다. 연기는 불이사상에 깔려 있는 불교의 근본 사상이기도 하다. 연기란 모든 사물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모여서 조건적으로 생성,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모든 존재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는 사회의 직접적인 조건인 개인들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체라는 측면에서는 개인들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에 선행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사회변혁의 여러 이론 가운데 사회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그것을 만들어 내는 개인의 변혁이 우선돼야 한다.

불이와 연기 등 불교의 사상속에 녹아 있는 지혜들은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을 포교해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다. 불경이 그토록 방대한 건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일반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불교학자나 스님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대해서는 반문하고 싶다. 불교학자와 스님들은 불자들에게 불교를 올바로 이해시키는 더 친근하고 쉬운 방법을 찾는 데 고민해야 한다.

토론 정병조 교수(동국대)는 "이번 주제 발표에서는 불이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 있다"며 "개인들만 변하면 자연히 사회 전체가 변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적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제 발표가 개인에게만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고 반박한 허우성교수(경희대)는 "불이사상이 과연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좋은 이념이라면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Ⅱ: 둘아닌 세계에서의 직업과 노동 윤리

박세일 교수 〈서울대 국제지역원〉

"노동행선 실천 시민정치 활성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즉 '세속의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면 이미 많은 중생보살들이 사회적 분업과 협업의 질서를 통해 '자리이타'의 보살도를 행하고 있고 직업노동을 통해 6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속의 세계'가 그대로 이미 '보살의 세계'이다. 그러나 '보살의 세계'는 완성된 세계라기보다는 완성을 향해 가는 세계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완성의 세계, 즉 '부처의 세계'를 앞당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두 가지 즉 노동행선의 실천과 시민정치에의 참여다.

이중 '직업노동'은 바로 분업과 협업의 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우리는 각자의 세속적 직업노동을 통해 연기의 망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기의 망에 가장 큰 특징은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질서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해 사회적 분업노동을 하는데 이는 결국 이웃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노동행선이 화두좌선보다 좋은 점은 우선 노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가치창조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화두좌선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하튼 화두좌선보다는 노동행선이 보다 대중적인 수양법이고 보다 일상적인 수양법이라고 생각한다. 노동행선은 각자가 자신의 직업노동에 성심성의로 혼신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집중과정에 자신이 매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것이다. 불국정토의 건설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시민정치에의 활성화다. 인간은 혼자 성불이 어렵기 때문이며 중생의 고는 주변의 사회환경이나 자연환경에서 오기 때문이다. 불국토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계몽운동)이나 전문가운동(정책운동)으로 대표되는 시민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토론 권기종 교수(동국대)는 "자리가 바로 이타가 된다는 주제 발표는 불교사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불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보시행 즉 이타를 통해 자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금자 변호사는 "스님들의 좌선이 노동선보다 못하다는 주제 발표는 물질적인 것만 강조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결과"라며 "단순한 노동선이 아니라 직업을 가진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직업 수행의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리=김주일 기자 jjkim@buddhapia.com

전체 논문내용은 인터넷 일간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음.